

“KTX 나주역 경유 가장 타당”

광주 송정~목포 노선선정위 무안공항은 함평서 연결

“기존선로 개량 수준 지역 발전 도움안돼”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목포(임성리)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나주역을 경유하고 무안공항은 지선으로 연결하는 안이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 방안은 기존 선로를 개량해 시속 300km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는 ‘무늬만 고속철’ 수준인데다,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노선도 ‘고속신선’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KTX 광주~목포간 노선 4가지 대안



구분	현행선	대안4
노선개요	중남선 복선전철	기존선(임성리) 나주역경유 무안공항 직결
연장	59.5km	76.1km
운행속도	137km/h	188km/h
소요예산	-	9,700억
소요시간	26분	무안공항 16분 목포 19분

(76.1km·9700억원·평균속도 188km/h·최고속도 230km/h) 등이다.

1순위로 선정된 4안은 고속철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선로(59.5km)를 개량해 활용하는 것으로, 함평역에서 무안공항간은 지선으로 연결하는 안이다.

철도시설공단측은 기존 시스템을 개량, 고속화하는 만큼 송정~임성리 구간을 21분(정차시)에 통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평균 시속이 188km에 불과하고 최고 속도도 시속 230km에 그쳐 사실상 고속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전남도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및 무안기업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무안공항 활성화를 내세워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선 건설’을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건설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가장 좋지 않은 노선이 1순위로 선정됐다”면서 “기존 선로를 개량하는데 그치는데다, 무안공항간 연결 노선도 고속선이 아니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같은 평가 결과를 늦어도 다음달 초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뒤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철 맛은 흑산 홍어

신안 흑산 홍어가 제철을 맞이 풍어를 이루고 있다. 22일 오전 신안군 흑산도 항구에 도착한 홍어잡이 어선이 위판을 위해 홍어를 바닥에 부리고 있다. 가격은 한때 8kg짜리 암컷이 80만원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어획량이 늘면서 40만원대로 떨어져

거러지고 있다. /흑산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 규제역 백신 강제접종 확정

70여년 청정지역 전남엔 신중히

규제역이 경북 안동, 경계에 이어 강원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강감하여 정부가 규제역 대책의 ‘마지막 수단’인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확정하면서 전남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22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규제역 사태가 심각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 규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유 장관은 “접종형태는 일정 반경을 대상으로 한 ‘링 백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 시기와 장소는 가축방역협의회 산하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늦어도 23일 오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측은 이번 링 백신은 일단 발원지를 중심으로 10km 반경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신접종은 지난 2000년 규제역 당시 단 한 차례 사용했던 처방으로 ▲

규제역 진원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내 지역을 접종하는 ‘링 백신’▲특정 지역 전체를 접종하는 ‘지역 백신’▲전국에 걸쳐 접종하는 ‘전국 백신’ 등 3단계로 나뉜다. 백신접종은 중단된 지 1년이 지나야 규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아 세계 각국이 꺼리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규제역 예방백신 접종 방침을 예의 주시하면서 도 경계는 물론 시·군 주요도로 76개소

에 방역초소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도로 지자체에 해맞이 행사를 취소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전남 축산농가들은 규제역 차단에는 공감하면서도 백신 접종으로 지난 1934년 이후 한 차례의 규제역 발생하지 않은 전남의 ‘청정 축산지역’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미 발생한 지역이 아닌 경우 백신 접종 확대를 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내 축산농가에서는 소 52만7000마리(3만4676가구), 돼지 84만6000마리(12577가구), 염소 5만4000마리(3742가구), 사슴 8000마리(643가구) 등 모두 143만5000마리의 가축을 사용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공식 신청

광주시가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신청했다. 광주시는 22일 무등산도립공원 구

역 30.23km를 무등산국립공원으로 승격·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무등산의 문화와 역사, 동물, 식물자원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1년여 동안 실시한 뒤 공청회를 개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어 답양·화산 등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산림청, 국토해양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광주시는 ▲무등산 중봉 지역 군부대 이전 및 복원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철거 및 복원 ▲중심사지구 철거 및 복원 등이 이뤄져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모든 여건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

옛 도청별관 새 해법 골격보존 방식 될 듯

30m 원형보존·24m 골격 유지...추진단 오늘 발표

옛 전남도청 별관의 대부분을 보존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형 보존이나 부분 보존이냐를 둘러싸고 지난 2년여 동안 정부와 광주시, 시민·사회단체 간에 벌어졌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최근 광주시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 54m 가운데 30m는 원형 보존하고 별관과 본관 사이 24m는 골격을 남겨 보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23일 오후 2시 이 같은 보존방안을 정리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이 마련한 별관 보존안은, 별관 54m 중도청 본관과 연결된 24m

골격이 유지된다면, 80년 5월 당시 최후의 황전지로서 역사적 현장인 별관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의 이 같은 방안은 ‘도청광장에서 문화전당 내부 광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원 설계자인 유구승씨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관 원형을 보존하자는 안과 일부를 철거 문을 내자는 이른바 ‘오월의 문’ 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즐거움 호텔스앤서비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객실+조식(2인)+미니케이크 증정 ₩100,000
 안스페스트(2인)+외인서비스 ₩55,000
 연례장·결혼선·돌잔치·각종세미나·세명까지의 숙박권증정
 발인기간 : 2010.12.24~2011.01.02 사내예약 필수!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 062-227-8500 | www.hi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식 모집 12월 17일~22일
 대군원사점수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아름다운 자연과 싱싱한 먹거리가 가득한 **건강의 섬 완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도해 일출공원에서 펼쳐지는 **2011 빛도 해맞이축제**

신묘(辛卯)년 해맞이
 2011. 1. 1(토) 06:30 ~ 08:00
 다도해일출공원(완도타워)
 일출감상, 일출기원제, 북소리공연, 소망 풍선날리기

완도군 WANDOCOUNTY